

일제강점기 조선 국어독본의 외래어 표기에 관한 일고찰

宋 淑 正*

(e-mail: suejoan@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며	2.2 조선 국어독본 제1기의 외래어 표기
1.1 연구목적	2.3 조선 국어독본 제2기의 외래어 표기
1.2 선행연구	2.4 조선 국어독본 제3기의 외래어 표기
1.3 연구자료	2.5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외래어 표기
1.4 연구방법	2.6 조선 국어독본 제5기의 외래어 표기
2. 조선 국어독본의 외래어 표기	3. 마치며
2.1 일어독본의 외래어 표기	참고문헌

1. 들어가며

1.1 연구목적

외래어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차용하여 자국어처럼 사용하게 된 말로, 일본에서 넓은 의미로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로 구성된 단어도 모두 외래어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말을 의미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에서 들어 온 외래어의 급증과 함께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게 되었다. 1991년 일본 국어심의회의 「외래어 표기 답신」¹⁾을 보면,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적는 습관이 확립된 것은 메이지기 이후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1) 国語審議會(1991) 「外国語の表記(答申)」 pp.1-2

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외래어를 한자로 적거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적는 등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은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일본의 경우 메이지 43년(1910)부터 사용한 제2기 국정독본 이후에 외래어의 가타카나 쓰기가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어 표기가 정착되어 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조선 국어독본²⁾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자료 수집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과서 전체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인식하며, 본고에서는 조선 국어독본 전 시기의 자료를 취합하여 외래어 표기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본문 문장의 표기 형태에 따라 외래어 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일본의 국정독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대 외래어 표기와 일치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시노다 류지(篠田隆治, 1940)³⁾는 조선 국어독본 제4기에 발행된 『소학국어독본』에 나타난 외래어를 의류, 음식물, 동식물, 광물금속, 생리화학, 가구, 종이, 스포츠, 기타로 분류하여, 단어의 어원과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분류에 관한 고찰만으로는 당시의 외래어의 사용현황은 엿볼 수 있지만, 외래어가 국어의 어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음운의 특질 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재숙(2007)⁴⁾은 일본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외국 지명표기를 국정교과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였으며, 외국지명을 대륙명, 국가명, 도시명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였다. 그는 각 시대에 따라 외국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국정 제6기에 들어서 현대와 같은 표기형식으로 통일되고 교육되어짐을 밝히고 있다.

민병찬(2005)⁵⁾은 현재 외래어 표기 방식이 가타카나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

2)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각 시기별로 교과서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 시기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본고에서는 조선 국어독본이라 칭하기로 한다.

3) 篠田隆治(1940) 「小学国語読本と外来語」 『朝鮮の教育研究』 pp.91-97

4) 윤재숙(2007) 「일본 국정교과서의 외국지명표기연구 : 검정교과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62집 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315-335

5) 민병찬(2005)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日本文化學報』 제2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3-38

지만 19세기 말까지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정서법의 정리와 함께 외국어와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할 것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외국어에 대한 한자표기, 히라가나 표기, 가타카나 표기 가운데 가타카나가 지닌 시각적인 효과 즉 문자상의 시차성(視差性)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민병찬의 문자상의 시차성을 극대화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본문 문장 구성과 외래어 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문의 문장 구성이 한자+히라가나 혼용 일 경우에 가타카나 표기가 문자상의 시차성이 가장 강조된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조선 국어독본의 본문 문장 구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고, 외래어 표기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3 연구자료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어 교과서는 총 5기에 걸쳐 발행되었다. 하지만 통감부시기에 대한제국 학부에서 출판한 일본어 교과서인 『보통학교학도용 일어독본(普通学校学徒用日語讀本)』⁶⁾도 실질적으로 교과서 편찬에 일본의 관여가 있었으므로, 일제강점기 교과서에 관하여 총체적인 비교 고찰을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보통학교, 소학교, 국민학교와 같이 지금의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 외에도 4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과서와 고등과정을 위한 일본어 교과서 등이 존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보통학교와 소학교,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일본어 교과서만을 고찰한다. 본고 고찰을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를 다음의 <표1>에 나타내었다.

<표1> 조선 국어독본의 시기분류

시기	편찬년도	교과서 명칭	권수
통감부기	메이지 40(1907)년	『普通学校学徒用日語讀本』	1-8권
제1기	메이지 44(1911)년	『訂正普通学校学徒用国語讀本』	1-8권
	메이지 45(1912)년	『普通学校国語讀本』	1-8권
제2기	다이쇼 12(1923)년	『普通学校国語讀本』	1-8권 (조선총독부)
		『尋常小学国語讀本』	9-12권 (일본문부성)
제3기	다이쇼 19(1930)년	『普通学校国語讀本』	1-12권

6) 이하 본고에서 『보통학교학도용 일어독본』을 일어독본이라 칭함.

제4기	쇼와 14(1939)년	『初等国語讀本』	1-6권 (조선총독부)
		『小学国語讀本』	7-12권 (일본문부성)
제5기	쇼와 17(1942)년	『ヨミカタ』『よみかた』	1-4권
	쇼와 17(1942)년	『初等国語』	5-12권

위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기의 『정정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訂正普通学校学徒用国語讀本)』은 1910년 한일병합 직후 교과서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기존의 학부편찬 『보통학교학도용 일어독본』을 일부 정정하여 발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에 있어 일부 명칭을 바꾸고 과를 생략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통감부시기에 발행된 『보통학교학도용 일어독본』 8권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제1기의 8권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아울러 제2기 『보통학교 국어독본(普通学校国語讀本)』의 1-8권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였지만, 9-12권은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재발행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8권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제3기의 12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제4기의 7-12권도 제2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재발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6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제5기의 12권까지를 포함한 총 54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1.4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외래어 표기와 본문 문장 구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문장 구성을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가타카나만으로 구성
- ② 한자+가타카나의 구성(이하, 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이라 함)
- ③ 한자+가타카나+히라가나의 구성
- ④ 한자+히라가나의 구성(이하, 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이라 함)
- ⑤ 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의 구성
- ⑥ 히라가나만으로 구성
- ⑦ 한자만으로 구성

다시 말해, 문장 구성이 가타카나로만 적혀져 있는 경우, 한자+가타카나의 혼용문의 경우, 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본문 말미에 히라가나 또는 히라가나 문장이 첨부된 경우, 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본문 중에 가타카나 문장이 첨부된 경우, 히라가나로만 적혀져 있는 경우와 한자로만 적혀져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외래어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누고, 고유명사는 지명, 인명,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アメリカ合衆國」, 「アリューション列島」와 같이, 지명과 함께 대륙, 열도, 산맥 등의 명사가 붙는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뒤의 명사는 생략하고 앞의 외래어 지명만을 표에 나타내었다.

2. 조선 국어독본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의 시기별 외래어 표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일어독본의 외래어 표기

일어독본에서 일반명사는 2개의 예와 고유명사는 지명 총 7개의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명, 기타 고유명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세한 예는 다음의 <표2>에 나타내었다.

<표2> 조선 일어독본의 외래어표기

		분류	예	출현 수	
일 어 독 본	일반명사 (2)		すてーしょん④	2	
			ステーション②		
	고유명사 (6)	지명		權太(カラフト)②	6
				いぎりす②, ろしや②	
				インド④, ドイツ④, ア ジャ④	
		인명		예문 없음	0
기타		예문 없음	0		
소계				8	

일반명사는 동일한 단어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과 ④한자+히라가나 혼용

문에서 모두 등장하였는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로 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ステーションデワ、大勢ノ人が、切符ヲ、買ツテイマス。(3권 제23과 p.74)
 (2) すてーしょんの外にわ、人力車や馬車などが、たくさんあります。(7권 제7과 p.24)

위의 예를 살펴보면 외래어 표기에서 요음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외래어의 경우 장음은 「棒引き仮名遣い」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고유명사 중 지명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로,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지명에서 다음과 같이 한자로 표기하고 가타카나로 루비를 달아 병기하는 예도 등장하였다.

- (3) マタ、北海道ノ北ニ^{カラフト}樺太^{トイフ}長イ島ガアリマス。(7권 제3과 p.12)

다시 말해 일어독본에서 일반명사는 「漢字平仮名交じり文」과 같이 한자와 결합하여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였으며, 고유명사 중 지명은 한자와 결합하여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와 반대되는 형태로 외래어를 표기하였다. 한자와 병기할 때의 루비는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였다.

2.2 조선 국어독본 제1기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 제1기의 외래어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조선 국어독본 제1기 외래어표기

조선 제 1 기	분류		예	출현 수
	일반명사 (15)			窒扶私(チブス)②, 実布埜利亜(ジフテリア)②, 虎列刺(コレラ)②
		ぺすと②, ぢすとま②, とらほ一む②, まっち②, て一ぶる②, め一とる②, らっぱ④	7	
		ラッパ①, 란프①④, 톤넬④, 마っち④, 란프④	5	
고유명사	지명 (26)		高麗(コマ)②, 百濟(クダラ)②, 任那(ミマナ)②, 北京(べきん)②, 浦塩斯德(ウラジオストック)②, 英吉利	23

(29)		(イギリス)②, 亜米利加(アメリカ)②, 仏蘭西(フランス)②, 独逸(ドイツ)②, 亜細亜(アジア)②, 欧羅巴(ヨーロッパ)②, 亜弗利加(アフリカ)②, 奥地利(オーストリア)②, 洪牙利(ハンガリー)②, 伊太利(イタリア)②, 倫敦(ロンドン)②, 巴利(パリ)②, 伯林(ベルリン)②, 紐育(ニューヨーク)②, 樺太(からふと)④, 露西亜②, 支那②, 新羅②	
		로시야②, 시베리아②	2
		오펜트④	1
	인명 (1)	로지스すとえんすきー②	1
	기타 (2)	포치②, 아이ぬ②	2
소계			44

조선 제1기 국어독본에서 일반명사는 총 15개의 예가 나타났으며, 고유명사 중 지명은 총 26개의 예가 나타났다. 인명과 기타명은 각각 1개와 2개로 나타났다.

일반명사는 ①가타카나로만 구성된 문장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외래어 표기는 히라가나로,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아울러, 다음의 예와 같이,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를 병기한 예도 볼 수 있다.

- (4) ^{チヨウチラス}腸塞扶私 · ^{ハシシチラス}発疹塞扶私 · ^{セキリ}赤痢 · ^{トウソウ}痘瘡 · ^{ショウコウネツ}猩紅熱 · ^{ジフテリア}实布埤利亜 · ^{コレラ}虎列刺 · ペス
とナドハ何レモ伝染病デ(7권 제14과 p.51)

고유명사 중 지명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히라가나로 표기되었으며, 한자는 한자만 표기되는 경우와 다음의 예(5)와 같이,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가 함께 병기되는 경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지명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다음의 예(6)과 같이, 히라가나 루비와 함께 병기하였다.

- (5) 生徒ノ中ニハ^{イギリス}英吉利ヲ知ツテ居タモノモアリ、^{アメリカ}亜米利加ヲ知ツテ居タモノモアリ、又、

仏蘭西^{フランス}・獨逸^{ドイツ}ナドヲ知ツテ居タモノモアリマシタガ、(8권 제8과 p.24)

(6) 台灣はずっと南の方の島で、樺太^{からふと}は北海道の北にある島です。(3권 제9과 p.71)

인명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로 표기되었고, 기타명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조선 국어독본 제1기의 외래어 표기를 요약하면,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는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반대되는 가나로 외래어를 표기하였다. 한자와 루비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같은 가나로 루비를 표기하였다.

2.3 조선 국어독본 제2기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 제2기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제9권부터는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국정독본을 조선총독부에서 재발행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1권부터 제8권까지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4> 조선 국어독본 제2기 외래어 표기

분류		예	출현 수
조선 제 2 기	일반명사 (30)	呎(フィート)②	1
		れーる②, じゃんく②, とんねる②, ふろべら④, りれー④, ぼふら④, ばかち④, ばん④, ぼけつと④, すけーと④, おんどの④, ばん④, ばけつ④, ごむ④, ちげ④	15
		포프라①②, 스케이트②, 온돌②, 볼더②, 램네④, 스크류④, 한케치④, 벤치④, 레그호른④, 마ച്ച്④, 나이프④, 가솔린④, 핸들④, 치즈스④	14
고유 명사 (35)	지명 (32)	新羅(しらぎ)④, 香港(ホンコン)④	2
		하르빈②, 로시야②	2
		아지야④, 오토츠크④, 아메리카④, 시베리아④, 요로프바④, 아프리카④, 아메리카④, 이ギリス④, 프랑스④, 이탈리아④, 프리마스록④, 싱가포르④, 코론포④, 스에즈④, 몰타島④, 지브랄탈④, 이ギリス④, 런던④, 프랑스④, 파리④, 벨기에④, 브뤼셀④, 오ランダ④, 암스테르담④, 투론④, 이탈리아④,	28

		ローマ④, ナポリ④	
	인명(2)	とくまん④, べる④	2
	기타(1)	ぺす④	1
	소계		65

위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제2기 국어독본에 나타난 일반명사의 수는 총 30개이며, 고유명사의 수는 35개이다. 일반명사의 경우 ①가타카나로만 구성된 예가 1예 있었으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모두 쓰였고,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두 가지 형태 모두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貞童가ポプラノフエヲモッテイマス。(3권 제5과 p.12)
- (8) 私はさむくても, おんどるの中にちじこまってはおりません。(4권 제18과 p.69)
- (9) スクリューのまはる音が聞えます。(7권 제23과 p.79)
- (10) 四人가同方向ニ押シ始メルト先ヅれ一る가上ニアガル。(7권 제13과 p.44)

위의 예(7)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ポプラ」가 가타카나로 쓰인 예이며, (8)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おんどる」가 히라가나로 쓰인 예이다. 같은 단어인 「おんどる」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オンドル」와 같이 가타카나로 쓰였다. 예(9)는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スクリュ」가 가타카나로 쓰인 예이며, (10)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れ一」가 히라가나로 쓰인 예이다. 이와 같이, 제2기의 일반명사는 다양한 표기 방식이 보였다.

지명의 경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로 표기되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한자와 병기 시에는 히라가나 루비 병기와 가타카나 루비 병기, 모두의 예를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1) 奉天以北、長春·はるびん·満州里ニ至ルマデ、多小ノ高低ハアツテモ、概シテ平野デアル。(7권 제22과 p.75)
- (12) 三月六日沖繩に御上陸、十日香港御着、十八日シンガポール、二十八日ロンボに着かせ給ふ。(8권 제24과 p.92)
- (13) 其の中我が大日本帝国と、イギリス·フランス·イタリヤ及びアメリカ合衆国を世界

の五大強国といふ。(7권 제3과 p.10)

위의 예 (11)은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はるびん」이 히라가나로 쓰인 예이며, 예 (12)는 「香港^{ホンコン}」과 같이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가 병기된 예이다. 예 (13)은 「イギリス」「フランス」「イタリヤ」「アメリカ」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쓰인 예이다. 이는 제1기 국어독본에서는 예 (13)과 같은 지명이 「英吉利(イギリス)」「仏蘭西(フランス)」「伊太利(イタリヤ)」「亜米利加(アメリカ)」와 같이,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가 병기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인명의 경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 히라가나로 표기되었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의 (14)와 같다.

(14) むかし、新羅^{しらぎ}の王女に、とくまん^{とくまん}というかたがありました。(3권 제10과 p.29)

위와 같이, 조선 국어독본 제2기의 외래어 표기는 일반명사의 경우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각각의 문장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유명사 지명표기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기 체계가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의 루비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모두 표기하고 있어, 조선 국어독본 제1기와 대조를 이룬다.

2.4 조선 국어독본 제3기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 제3기의 외래어 표기는 일반명사 72개, 고유명사 68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 국어독본 제3기 외래어 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다양한 문장 구성 형태가 등장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조선 국어독본 제3기 외래어 표기

조	분류	예	출현 수
선 제 3	일반명사 (71)	温突(おんどる)④	1
		めーとる②, へくたーる②, あーる②, きろ②, まぐねざいと② ぷろべら②, ぼふら④, らっぱ④, ぱん⑥, へん⑥, ら	13

기	고유 명사 (74)		んふ⑥, ぼんふ⑥, びんぼん⑥ 팝라①②④, 라っぱ①, 빈①, 코ップ①, 펜①④, 팩①, 브리키칸②, 리본②, 비어②④, 메트② ④, 스톱④, 펜키④, 키로메트④, 샹벨④, 바케트④, 센치④, 고무④, 셔츠④, 판④, 스키트 ④, 코퍼④, 레일④, 잔크④, 스쿨④, 한케 치④, 글라스④, 벤치④, 키④, 키로그람④, 그람 ④, 사이더④, 레일④, 키④, 메트④, 밸브 ④, 텐트④, 가솔린④, 홈④, 가솔린램프④, 피 야노④, 보트④, 엔진④, 알루미늄④, 셀로 이드④, 아카시야④, 톨넬④, 트랙터④, 인치④, 브라질코피④, 맨트④, 펌프④, 파카치④, 코퍼 라④, 올림피크④, 타워④, 롤러④, 아크④	57
			多婆那(타바나)②, 樺太(카라후토)④, 蒙古(몽고)④, 印度④	4
			あじや②	1
		지명(59)	아지야④, 오호츠크④, 아메리카④, 요로빠④, 싱가포르 ④, 시베리아④, 프랑스④, 이글리스④, 런던 ④, 트로코④, 필리핀④, 멕시코④, 파나마④, 클레 라④, 사호④, 브라질④, 리오데자네이로④, 아마존 ④, 이그래스④, 아르젠틴④, 산파울로④, 이타 리아④, 오스트라리아④, 리만④, 뉴욕④, 엑 아돌④, 아프리카④, 가야킬④, 마리아나④, 파리 ④, 도이츠④, 베링④, 에베스트④, 마젤란④, 그리샤④, 스톡홀름④, 암스텔담④, 카리올 니아④, 로스안젤스④, 팀즈④, 웨스트민스터 ④, 샹제리제④, 루블④, 베를린④, 제 너브④, 알프④, 운텔④, 린덴④, 캐나다④, 히말라야④, 루소④, 마가다④, 카피라④, 쿠시나하라④	54
		인명(13)	큐니오④, 트레비치④, 스텝슨④, 제너 너④, 라이트④, 스로프④, 아페닌④, 플렉스너 ④, 미첼④, 록펠러④, 카를④, 요한④, 토마스 에지슨④	13
		기타(2)	아이④, 에펠④	2
		소계		145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명사는 ①가타카나로만 구성,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 ⑥히라가나로만 구성의 경우로 총 4가지의 문장 구성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 ラッパ、ピン、コップ、ペンシク、タンポポ。(1권 p.41)⁴⁾
 (16) 田畝アハセテ約百万へくた一るノ面積ヲ増シ、(8권 제26과 p.129)
 (17) 朝日ノ光ガマドノスキマカラ、リボンヲヒロゲタヨウニサシコンデイマシタ。(3권 제15과 p.50)
 (18) あれ、あんなにぼふらのえだや草のはがゆれています。(3권 제16과 p.53)
 (19) お父さんと私がベンチに腰をかけてみると、乗合せてみた金をおさんがおいでになって、(7권 제17과 p.79)
 (20) ぴんぼん、ぼん、ぺんさき、らんぶ、ぼんぶ。(3권 제17과 p.60)

위의 예 (15)와 같이, ①가타카나로만 구성된 문장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로 표기된 예는 예 (16)과 같으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된 예는 예 (17)과 같다.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에는 히라가나와 한자로 표기되었다.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 히라가나 루비와 병기되었다. 마지막으로 ⑥히라가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히라가나로 표기되었다.

- (21) オトウ様ハ遠イ東ノ^{タビナ}多^{タビナ}婆那トイウ国ノ王様デシタ。(6권 제8과 p.33)
 (22) そのまはりの陸地でシベリヤ와^{からふと}權太の一部をのぞけば、他はすべて我が国の領土です。(8권 제22과 p.103)

지명의 경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로 병기된 것과 히라가나로 표기되었으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히라가나 루비가 병기된 것, 루비 없이 한자로만 표기된 것, 가타카나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예(21)은 ②한자와 가타카나 혼용문에서 한자와 가타카나 루비로 표기된 예이며, 예 (22)는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된 예와 한자가 히라가나 루비와 병기된 예이다.

인명과 기타명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인명의 예는 다음의 (23)과 같다.

4) 조선 국어독본 제3기의 1권은 과의 구별이 없이 본문이 나열되어 있다.

- (23) 스チープンソンはそのごますノ、研究をつゞけて、一時間四十八キロも走る汽車を造り上げた。(9권 제7과 p.30)

2.5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경우 제1권에서 제6권까지만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제7권부터는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본고는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외래어 표기 분석을 위해 제1권부터 제6권까지만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조선 국어독본 제4기 외래어 표기

조선 제 4 기	분류		예	출현 수
	고유명사 (2)	일반명사 (14)		ぼぶら④, らっぱ④
			ゴムグツ②, オンドル②, バケツ②, ゴム②, ガラス②, タンカ②, カン②, ラッパ④, 메트르④, サイレン④, 프로페라④, 라디오④	12
지명 (2)			樺太(からふと)④	1
			シベリヤ④	1
인명		예문 없음	0	
기타		예문 없음	0	
소계				16

조선 국어독본 제4기에서 일반명사는 14개, 고유명사는 지명에서 2개가 나타났다. 인명과 기타명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명사의 경우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 (24) オンドルデ、オリガミヲシテイルト、オカアサンガ、(2권 제20과 p.94)
 (25) 私は、川上からぼぶらの葉をながしました。(4권 제6과 p.15)
 (26) 五時におきて、ラジオ体操に行った。(5권 제18과 p.95)

위의 예(24)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된 예이며, 예(25)는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 히라가나로 표기된 예이다. 예(26)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된 예이다.

고유명사에서 지명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 일 때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

기되는 예가 각각 등장하였으며, 한자는 히라가나 루비와 병기되었다. 그 예는 다음의 (27)과 같다.

(27) 廻りの陸地は、シベリヤと樺太^{からふと}の一部をのぞくと、あとは日本の領土です。(6권 제 8과 p.49)

조선 국어독본 제4기까지의 지명 표기를 살펴보면, 한자와의 루비 병기는 기본적으로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와 동일한 표기로 루비를 표기함을 알 수 있다.

2.6 조선 국어독본 제5기의 외래어 표기

조선 국어독본 제5기 외래어 표기는 일반명사 83개, 고유명사 61개가 나타났으며 특징적인 점은 2학년 2학기 과정인 제4권부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으로 문장의 형태가 일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표7> 조선 국어독본 제5기 외래어 표기

	분류	예	출현 수
조선 제 5 기	일반명사 (83)	すとーぶ④, めーとる④	2
		ゴムグツ②, ポプラ②④, ラジオ②④, シャツ②④, グライダー②, ポスト②, ポケット④, キャラメル④, センチ④, ミリ④, トンネル④, ラッパ④, 메ートル④, 고무④, 바케쯔④, 가라스④, 바나나④, 마스트④, 탱크④, 톤④, 스케이트④, 레ール④, 라이온④, 안테나④, 프로페라④, 피스톤④, 트랙④, 키로④, 스코ール④, 피야노④, 타이피스트④, 알루미늄④, 데ッキ④, 보트④, 베허카④, 온돌④, 망고스친④, 레몬④, 파파이야④, 즈본④, 트랙터④, 카시오페야④, 텐트④, 쟁글④, 러크 sack④, 보올④, 렌즈④, 키로메ートル④, 노트④, 산치④, 아라비아④, 램프④, 페이지④, 안페라④, 쟁크④, 토치카④, 가솔린④, 콘크리트④, 세멘트④, 타마린드④, 망고④, 사오④, 도리안④, 자본④, 파파이야④, 논코④, 사론④,	81

고유 명사 (61)	지명 (49)	뉴스④, 트로코④, 풀④, 칩④, 스위치 ④,ハンマー④, 샤펠④, 페달④, 모터 보트④, 파인애플④, 핑퐁④, 홈④, 토치카④, 보일러④	
		히라가나 또는 한자표기 예문 없음	0
	인명(8)	아리우션④, 마레이④, 이ギリス④, 아지야④, 크 안탄④, 타이④, 빌마④, 샴④, 레키ントン ④, 하와이④, 아메리카④, 싱가포르④, 스마트 ④, 자와④, 필리핀④, 오스트라리아④, 요로 파④, 브키테마④, 마라이④, 아프리카④, 솔로 몬④, 시베리아④, 파렌반④, 랑그④, 민가 라돈④, 퀘안탄④, 러시아④, 코타발④, 게 마스④, 바타④, 나치브④, 인도④, 우라 지오스톡④, 캄차카④, 자칼타④, 마 게란④, 무라비④, 나치브④, 스텐 찬④, 오ランダ④, 바랑가④, 다 바오④, 그리스④, 시드니④, 밴 돈④, 바리④, 베링④, 오호츠크④, 파렌반④	49
		파시발④, 스텐셀④, 콘드라텐코④, 네 보카트④, 니콜라이④, 로제스 투엔스키④, 탠 존·프리오크④, 노이츠④	8
	기타(4)	프린스·오브웨일즈④, 레발스④, 사 라타가· 요크타운④, 스피트파이어④	4
소계			144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명사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日本ラジオハ、日本ノコトバヲハナシマス。(一ネン下5) 제7과 p.24)

(29) すと一ぶがきもちよくもえてゐます。(二ねん下 제13과 p.54)

위의 예(28)의 「ラジオ」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과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 모두에서 가타카나로 쓰였으며, 이와 같이 양쪽 모두에서 등장한 예는 「ポプラ」와 「シャツ」가 있다.

5) 조선 국어독본 제5기는 1학년은 『ヨミカタ 上·下』, 2학년은 『よみかた 上·下』, 3학년에서 6학년은 각 학년별로 『初等国語 上·下』로 나누어져 있다.

고유명사 중 지명은 히라가나 또는 한자로 표기된 예는 없었으며, 다음의 예 (30)과 같이, 가타카나로만 표기되었다.

(30) クアンタン의 沖을 飛んで みた 時 である。(第3学年上 제19과 p.91)

인명과 기타명도 모두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조선 국어독본 제5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유명사는 모두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국어독본 제5기의 고유명사에 한해, 외래어 표기의 형태적인 모습은 현대의 외래어 표기와 일치하지만, 「アジヤ」 「シベリヤ」 등과 같이, 일부 단어가 현대 외래어 표기와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 제5기에 이르기까지 외래어 표기는 안정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일어독본과 조선 국어독본 제1기부터 제5기까지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의 양상을 각 시기별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누어 본문 문장 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외래어 표기의 경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조선 국어독본의 외래어 표기

시기	문장 구성	일반명사	고유명사		
			지명	인명	기타
일어독본	②한자+가타카나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가)	없음	없음
	④한자+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제1기	①가타카나	가타카나	없음	없음	없음
	②한자+가타카나	히라가나	히라가나	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한자, 한자(가)		
④한자+히라가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한자(히)	없음	없음	
제2기	①가타카나	가타카나	없음	없음	없음
	②한자+가타카나	히라가나	히라가나	없음	없음
		가타카나			
④한자+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한자(히),한자(가)	히라가나	히라가나	
제3기	①가타카나	가타카나	없음	없음	없음

	②한자+가타카나	히라가나	히라가나	없음	없음
		가타카나	한자(가)		
	④한자+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한자(히)		한자, 한(히)			
제4기	②한자+가타카나	히라가나	없음	없음	없음
		가타카나	없음		
	④한자+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없음	없음
가타카나	한자(히)				
제5기	②한자+가타카나	가타카나	없음	없음	없음
		히라가나	가타카나		
	④한자+히라가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가타카나

위의 표와 같이, 일어독본에서 일반명사는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같은 형태로 외래어를 표기하고, 고유명사 중 지명은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반대되는 형태로 외래어를 표기하였다.

조선 국어독본 제1기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는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반대되는 가나로 외래어를 표기하였다. 한자와 루비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같은 가나로 루비를 표기하였다.

조선 국어독본 제2기는 일반명사의 경우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각각의 문장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유명사 지명표기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기 체계가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국어독본 제3기는 문장의 구성이 다양하였으며, 일반명사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한자로 표기되었다.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 히라가나 루비와 병기 되었으며, 고유명사 중 지명은 한자와 결합되어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반대되는 가나로 외래어를 표기하였다.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일반명사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에서 가타카나,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고유명사에서 지명은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 일 때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한자는 히라가나 루비와 병기되었다.

조선 국어독본 제5기의 일반명사는 ②한자+가타카나 혼용문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되었으며,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고유명사는 모두 ④한자+히라가나 혼용문의 형태를 이루며, 가타카나로 표기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명사의 외래어 표기는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제5

기까지 현대와 같이 가타카나로만 표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유명사의 경우 제5기에 이르러 히라가나와 한자 표기는 사라지고 가타카나로만 표기됨을 통해 외래어 표기의 경우 일반명사에 비해 고유명사의 표기가 일찍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국정독본의 경향과 유사하며, 윤재숙은 일본 국정독본의 경우 1947년부터 사용된 국정독본 제6기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가나카나로만 표기되는 외래어 표기로 정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국어독본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타카나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조선 국어독본 제4기의 분석을 제1권에서 제6권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국어독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체수가 적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제2기에서 한 가지의 예를 제외하고 한자와 루비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 표기와 같은 가나로 루비를 표기하였으며,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혼용문을 이루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가나 표기가 등장하였지만,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혼용문을 이루는 가나와 반대되는 가나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민병찬의 연구에 나타난 문자상의 시차성을 강조한 구성과 관련이 깊으며 고유명사의 경우 시차성을 강조한 구성이 조선 국어독본 초기부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장 구성과 외래어 표기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금후, 이를 바탕으로 외래어의 어원을 조사하여, 어원과 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민병찬(2005)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日本文化學報』 제24집 한국일본문학회 pp.23-38
- 윤재숙(2007) 「일본 국정교과서의 외국지명표기연구 : 검정교과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62집 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315-335
- 國語審議會(1991) 「外國語の表記(答申)」 pp.1-2
- 篠田隆治(1940) 「小学國語讀本と外来語」 『朝鮮の教育研究』 pp.91-97
- 朴英淑(2000) 『普通学校國語讀本』 福岡教育大学付属図書館藏本, 粒粒舎

要 旨

本稿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国語読本の外来語表記に関する考察を行ったもので、対象となる『日語読本』と第1期から第5期までの『国語読本』の外来語を一般名詞と固有名詞に分けて、文章構成との関係を調べ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一般名詞の外来語表記は時期別に様々な様子で現れ、第5期まで現在のようない片仮名だけで表記される様子は見られなかった。しかし、固有名詞の場合、第5期に至って平仮名と漢字の表記は無くなり、片仮名だけで表記されることが分かり、外来語の表記の場合、一般名詞に比べ、固有名詞の表記が先に定着した事が分かった。

また、第2期の1の例を除いて漢字とルビが共に書かれる場合は、交じり文の仮名と同じ仮名でルビを書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一般名詞の場合、様々な表記が登場したが、固有名詞の場合は交じり文で書かれた仮名ではない仮名で外来語を表記した事が分かった。

今後、本稿を基に、外来語の語源を調べ、語源と表記との関係を調べてみ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国語読本、外来語表記、植民地時代、漢字仮名交じり文、国定読本、日本語教育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